

St. Jude 쌍엽 기계판막을 이용한 승모판막 치환술의 임상 성적.

서울 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 교실
 이석진, 안혁, 최현, 김중환

판막 치환술에 있어 인공 판막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아직 매우 어렵고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결정에 지침을 마련코자 서울대학교 병원 흉부외과학 교실에서 1984년부터 1991년까지 시행한 St. Jude쌍엽 기계판막을 이용한 승모판막 치환례를 추적하였다.

모두 220례의 승모판막 치환술이 시행되었으며, 가장 많이 사용된 크기는 31mm로 평균 30.5mm 였다.

한례의 좌심실파열을 포함하여 12례의 슬후 및 병원내 사망례가 있었고, 33례의 합병증과 20례의 만기 합병증이 관찰되었다.

본 교실에서는 슬후 항응고 요법으로 Warfarin을 경구 투여하고 있으며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는 일부환자에게는 Dipyridamole을 병용하고 있다.

Complication - free 5년 생존율과 Thrombus - free 3년 생존율은 각기 약 89.3%와 96.1%였다.